



SI메모리 훈풍 올라타고 'HBM 공급 효과'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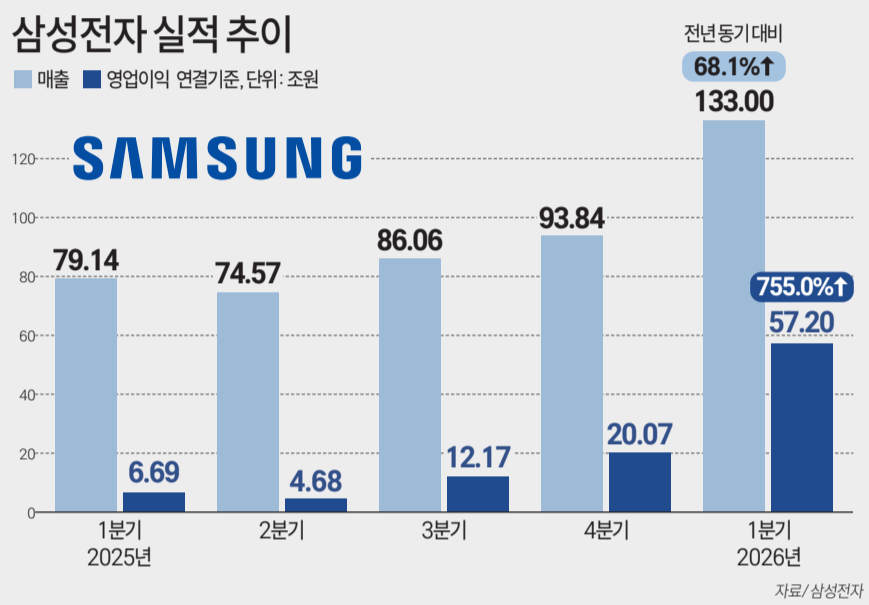
1분기 잠정매출 133조·영업익 57조
분기 매출·영업익 모두 사상최대
HBM·D램 가격강세 반도체 호황
엔비디아 추격 가능성 등 시장 관심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역대 최대 잠정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기업 분기 실적의 새 역사를 썼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HBM 공급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 엔비디아 추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 2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한 분기 만에 실적 규모를 세 배 가까이 끌어올린 수준이다.

업계는 이번 실적을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른 구조적 업황 개선의 신호로 보고 있다. 메모리 가격 강세와 AI 서버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적 견인의 일등 공신은 반도체(DS)



부분이다. 업계는 DS 부문에서만 5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AI 붐으로 인해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이 전 분기 대비 90%가량 급등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결과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세대 제품인 HBM3E를 글로벌 빅테크에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6세대 HBM4 양산 공급을 본격화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1분기 실적에는 HBM3E와 HBM4 공급 확대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완제품(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다바이스경험(DX) 부문은 반도체와 온도를 보였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와 TV·가전 사업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했지만, 이번 분기 실적 개선은 사실상 반도체 사업이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이번 실적의 지속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업계는 이번 실적을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른 구조적 업황 개선의 신호로 보고 있다. 메모리 가격 강세와 AI 서버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90~95% 상승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약 6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순위가 글로벌 2위까지 뛰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KB증권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기준으로 엔비디아에 이어 글로벌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294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며, 마이크로소프트(245조원), 구글 모회사 알파벳(241조원), 애플(223조원), 아마존(150조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1위 가능성도 제기된다. KB증권은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327조원, 엔비디아를 357조원으로 추정하며 양사 격차가 약 30조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와의 기업가치 격차 역시 한층 좁혀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HBM을 중심으로 한 AI 메모리 수요가 범용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번 실적 호조가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관건은 하반기까지 가격 강세와 수요 모멘텀이 얼마나 이어지는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나노 고도화 속도... 파운드리 반등 준비

2나노 열문제 풀 기술로 경쟁력 높여
테일러랩 시운전·장비 반입 막바지
테슬라·퀄컴 등 첨단칩 수주 기대감

삼성전자가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적자 늪을 지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반등 여부가 다음 관전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2나노(nm·10억분의1m) 공정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며 테일러랩 수주 확대를 병행하는 등 반등 기반을 다지는 모습이다.

7일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 2026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2나노 극미세 공정의 최대 난제인 열 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칩 하단에 위치했던 온도 센서를 상단 배선층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을 개발했다. 당초 삼성전자 파운드리 2나노 등 최첨단 극미세 공정에서 발열과 면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온도 센서 설계 자산(IP)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테일러랩이 최근 시운전 단계에 진입하며 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초미세 공정의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테스트가 시작됐으며 클린룸에는 식각·증착 등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가 순차적으로 반입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2나노 공정에는 삼성전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600'을 생산한다. 해당 칩은 갤럭시S 26 일반·플러스 모델과 올해 출시될 플립 신제품에 탑재될 전망이다. 테슬라의 AI칩 'AI5'와 'AI6'도 양산할 예정이다. 이에 내년부터 테슬라형 AI칩 매출이 본격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아울러 퀄컴의 신규 AP 수주에도 성공해 2나노 공정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AP 신제품을 활용하는 고객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용 주문형 반도체(ASIC)와 미국 자율주행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2나노 칩 주문도 확보했다.

1.4나노 공정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

다. 당초 내년 양산을 목표로 했지만 수출 안정화 등 기술적 과제를 반영해 양산 시점을 2029년으로 조정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2030년에는 1나노 공정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TSMC가 2028년 하반기 1.4나노 양산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아직 1나노 생산 로드맵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2나노 공정이 가능한 업체가 TSMC와 삼성전자 두 곳에 불과한 만큼 양사의 1나노 공정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율과 기술이 안정화된 4나노 공정에서 HBM4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HBM4에 10나노급 6세대(1c) D램 코어 다이와 파운드리 4나노 핀펫(FinFET) 기반 베이스다이를 적용했다.

테일러랩을 중심으로 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테일러랩 일부 구역이 임시사용승인(TCO)을 취득한 만큼 전문 엔지니어의 현지 파견과 신규 인력 채용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에는 180건의 채용공고를 올리며 공정, 계측, 품질 관리, 공급망 관리, 인프라 등 라인 운영에 중요한 핵심 포지션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



'어닝서프라이즈'에 목표주가 줄상향

1분기 최대 실적, 이익전망 확대
메모리값·AI 수요에 눈높이 높여
금리·기술 변수·중동 리스크 여전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 기대가 빠르게 재평가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추정치 상향과 함께 목표주가 상향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다만 기술 변수와 가격 흐름, 금리 환경 등은 단기 투자심리를 흔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 2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이자 매출 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최하다.

증권가는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익 가속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1분기 메모리 가격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상승 흐름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탑재량 증가로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 저항은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익 전망도 빠르게 상향되고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을 각각 327조원, 488조원으로 제시하며 기존 대비 49%, 62% 상향 조정했다. 김 본부장은 "이익 추정치가 현실화

될 경우 내년 글로벌 영업이익 1위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업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D램과 낸드 평균판매단가 상승 폭이 기존 추정보다 가팔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에도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업황 개선 기대는 장비·소재·부품(소부장) 업종에도 일부 반영되는 모습이다. 이날 리노공업(3.98%), 이오테크닉스(4.30%), 원익IPS(1.69%) 등이 상승했다. 김복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실적을 계기로 투자심리가 전환되고 있다"며 "신규 투자 확대와 공정 고도화 흐름을 감안하면 소부장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52주 최고주가 대비 약 12%가까이 하락했지만, 증권가는 오히려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36만원, 한국투자증권은 33만원, 미래에셋증권은 30만원을 제시했다.

다만 변수도 남아 있다. 구글의 메모리 효율화 기술 '터보퀀트'와 D램 가격 흐름, 미국 금리 방향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투자심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

